

리튬득 수집, 정리



백두산 나무와 약초와 명물 전설

# 백두산 소나무는 왜 사철 푸른가



연변인민출판사

백두산 나무와 약초와 명물 전설

백두산 소나무는  
왜 사철 푸른가

리룡득 수집, 정리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리선애

책임교정: 김홍화

---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长白山松树为什么四季常青 / 李龙得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5. 12  
ISBN 7-80698-568-9

I. 长... II. 李... III. 朝鲜族—民间故事—作品集—中国—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77.3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5)第136578号

---

---

**长白山松树为什么四季常青**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印刷: 延吉大明彩色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6插图      印张: 5      字数: 110千字

标准书号: ISBN 7-80698-568-9 / I·71 (民文)

版次: 2005年12月第1版      2005年12月第1次印刷

印数: 1—2000册      定价: 16.00元

---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겨울의 느티나무



조팝나무



이팝나무



매실나무



벚나무



미인송



쇠스랑



산천어



꽃사슴



노랑만병초



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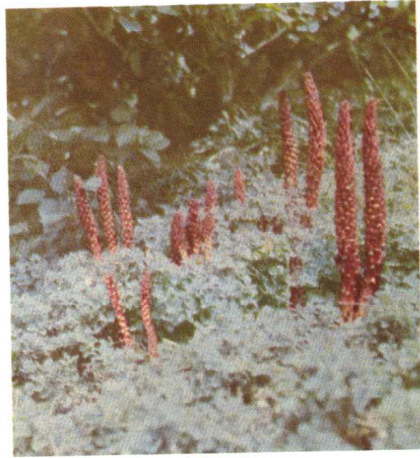
오미자



백두산차



인삼



불로초



령지

## 전설의 주인공 리룡득

-머리말을 대신하여

류연산

리룡득선생의 글은 대체로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울적>에서부터 시작하여 <고진감래라고 그후 그들은 잘살았다>로 결속된다. 그리고 이야기는 선한자는 복을 받고 악한자는 벌을 받는 권선징악(勸善懲惡), 인과보응(因果報應)의 사상으로 관통되어있다. 물론 이것은 전설의 공통된 구조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라도 리룡득선생의 전설과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주인공들은 선생자신의 화신(化身)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순수하고 애증이 분명하다. 지난 4월 13일 안도현 명월진에 있는 선생의 자택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리룡득선생은 전설속의 인물 그 자체라는감을 너무나 강하게 받았다.

그는 안도현 량병진 보광촌에서 태어나 겨우 초중을 졸

## 2 / 백두산 소나무는 왜 사철 푸른가

업하고 고향에서 농사일에 종사해왔다. 가세가 빈한하여 승학의 꿈을 일찍 접어야 했던 그한테 20대에 현문화관 관원으로 되는 출세의 길이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단연 봉록(俸祿)을 포기하고 귀향을 선택했다. 그 바람에 안해 서옥순(徐玉順, 1940년생)마저 현가무단의 적(籍)을 버리고 농사꾼이 되는 막다른 길에 오르지 않으면 안되었다. 물론 당시에는 농촌이 도시 못지 않았다고 하지만 일년사시절 땅과 씨름해야 하는 농사일에 육체를 혹사하는 일이 고역이 아닐수는 없었을것이다. 그랬으면서도 그로 하여금 험한 인생의 외길을 고집하게 한 장본인은 전설이었다.

어릴 때 할머니의 옛말을 자장가처럼 들어오며 자란 그는 옛말의 현혹을 떨쳐버릴수가 없었다. 여름이면 마을의 어느 마당에 피워놓은 모기불주위에 둘러앉아서 한마디씩 하는 마을로인들의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모기가 무는것도 몰랐고 겨울이면 온돌우의 화로불을 되작이는 로인들의 타령소리에 겨울밤이 지새는줄도 몰랐었다. 그는 부지런히 적었고 다시 꼼꼼히 정리하여 발표했다. 그렇게 그가 세상에 내놓은 전설은 무려 1천여편, 그가 정리한 노래는 수백여수, 그것은 그대로 우리 민족의 력사라고 하겠다.

사전해석에 따르면 전설이란 옛날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말 또는 이야기로서 사람들이 실설(实说)처럼 믿어내려온 설(说)이라고 한다.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처럼 믿어오게 하는 마력은 무엇인가? 바로 전설의 핵(核)이다. 그 핵이란 무엇인가? 바로 력사의 진실이다.

력사가들은 전설을 외면한다. 정사(正史)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야사(野史)라는것이 리유이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정사(正史)란 위인들의 전기에 불과하다. 오히려 때로는 그것이 위정자들에 의해 다듬어진 허구이기도하다. 반대로 전설은 야사(野史)이며 삶을 추구하는 인간들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백성들에 의해 대대손손 전해온 진실인것이다. 하기에 만약 정사만 있고 야사가 없다고 한다면 인류의 역사는 해골을 방불케 할것이다. 야사가 피가 되고 살이 되므로 우리는 선인들의 참모습을 만나게 되는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리룡득선생은 역사의 기록자로서 손색이 없다. 그의 전설속 주인공의 생활의 애환속에서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터득할수 있다. 그리고 이야기의 회로에락속에서 조상들의 삶의 의미를 깨달을수 있다. 또한 주인공이 절망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불굴의 정신에서 조상들의 삶의 태도를 배울수 있다.

바로 이러한 삶의 지혜, 삶의 의미, 삶의 태도를 가진 리룡득선생이었으므로 그는 결눈 한번 팔지 않고 전설에 평생을 바칠수 있었고 우리 민족 민간문학사에 길이 남을 공적을 쌓을수 있었다.

그는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고나서 한마디 했다.

《조상한테 감사할뿐이지요.》

다른 사람이라면 입에 발린 가식으로 받아들여졌을 이 말을 리룡득선생의 입을 통해 듣는 순간 나는 조상에 대한

4 / 백두산 소나무는 왜 사철 푸른가

그의 무한한 존경심을 읽고 감동했다.

이 책에 수록된 전설들은 리룡득선생이 평생을 두고 수집정리한, 백두산에 얽힌 우리의 조상들의 주옥같은 이야기들이다.

2005년 9월 5일

## 차 례

- 민간전설속의 미인송 / 1
- 항일전설속의 미인송 / 3
- 송도선녀가 변해서 된 미인송 / 5
- 붓나무 / 9
- 느티나무 / 11
- 만년송 / 13
- 백두산 소나무는 왜 사철 푸른가? / 16
- 갈증을 해소해준 매실나무 / 20
- 흙이 적어진 리유 / 22
- 룡의 보호를 받은 배나무 / 24
- 효자를 도와 거부기를 고아준 뽕나무 / 26
- 순산을 도운 회양목 / 28
- 이팝나무 / 30
- 인동 / 32
- 팔손이나무 / 35
- 딸이 죽어서 된 파초나무 / 37
- 시어머니가 죽어서 된 딸기나무 / 39
- 황화송 / 42

2 / 백두산 소나무는 왜 사철 푸른가

두릅나무 / 44

조팝나무 / 49

불로초 / 52

령지 / 61

들쭉 / 68

버선나물 / 73

매기 / 79

다래(1) / 82

다래(2) / 85

산천어 / 87

구기자 / 89

자삼 / 92

록용 / 94

접골삼 / 96

목련 / 98

왕삼 / 100

구명삼 / 103

오미자 / 106

석차 / 109

장홍화 / 111

환생초 / 113

더덕 / 116

해갈삼 / 118

수문제의 두통을 가셔준 차 / 124

인삼 / 126

꽃사슴(매화록) / 131

록태 / 133

별받은 천지가의 흰토끼 / 135

가시삼 / 137

향한초 / 141

독삼 / 144

## 민간전설속의 미인송

장백산기슭에서는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아름다운 미인송이 자라고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전설이 깃들어있다.

하늘나라 옥황상제의 일곱째딸 직녀가 인간세상에 내려와 견우와 더불어 살림을 꾸리고 슬하에 두 아들딸을 두었건만 천궁으로 돌아오라는 옥황상제의 서슬같은 어명에 끝내 옥황궁으로 환궁하고말았다. 오로지 님 향한 마음으로 모대기던 직녀는 드디어 음식을 전폐하고 몸져 드러눕게 되었다. 옥황상제는 별수 없어 해마다 칠월칠석이면 직녀를 장백산에 내려보내 하루만 견우를 만나보게 윤택했다. 허나 칠월칠석날 단 하루밤의 상봉으로 어찌 불같이 타오르는 그들 사랑의 열화를 끝수 있었겠는가. 오히려 직녀의 마음은 옹어리져 아주 드러눕게 되었다.

《옥황폐하, 직녀의 신색이 날따라 못해져 인젠 생사가 경각에 이른것으로 아뢰나이다.》 신하들의 이와 같은 간곡한 상주에 옥황상제는 도리어 대노했다. 《요망한 년 같으니라구, 전일에 범한 죄만 해도 용서할수 없을진대 다시